



섬나무딸기 / *Rubus takesimensis* Nakai

| 구분   | 설명  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|
| 속국명  | 산딸기속 |
| 과국명  | 장미과  |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<b>과명</b>   | Rosaceae   |
| <b>일반특징</b> | <p>요약설명 : 장미과의 낙엽활엽 아관목으로 울릉도, 오동도의 바닷가 산기슭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울릉도, 오동도의 바닷가 산기슭에서 자란다.</p> <p>형태 : 낙엽활엽 아관목</p> <p>크기 : 높이 4m 정도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5월,6월</p> <p>잎은 손모양이고 3~5개로 갈라지지만, 짧은 가지의 잎은 3개로 갈라지거나 또는 갈라지지 않는다. 산딸기와 달리 잎자루와 잎 뒷면 주맥에 갈퀴같은 가시가 없다.</p> <p>꽃은 6월에 핀다. 가지 끝에 달리고 2개씩 달리는 것도 있다. 꽃잎은 타원형이고 흰색이다. 꽃잎은 5개이고 수술은 적갈색이다.</p> <p>원줄기는 길이 4m이고 가시가 없다.</p> <p>뿌리는 지표면 가까이 있는 헛뿌리 땅속줄기에서 뿌리움이 발생한다.</p> <p>별이 드는 곳에 사는 식물로 그늘진 곳에서는 자라지 못하며 개방된 곳에서만 큰 집단을 형성한다. 이때 쑥, 차풀, 닭의장풀, 달맞이꽃, 억새, 싸리 등이 함께 나타난다. 추운 곳에서는 거의 땅속과 지상의 경계 부분까지 동사한다.</p> <p>번식은 딸기를 새끼에 묻혀서 땅 속에 얇게 묻어 두면 싹이 튼다.</p> <p>산딸기와 약간 닮았으나 키가 더 크고 가시가 없으며 광택이 나고 꽃과 잎이 대형인 것이 특징이다.</p> |